



가톨릭마산

연중 제5주일

2024년 2월 4일

제2603호



복음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욥기 7,1-4.6-7

화 답 송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제 2 독 서 1코린 9,16-19.22-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 음 마르 1,29-39

영 성 체 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최동환 베드로 신부
평거동본당 주임

짜가가 판을 친다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 있는 화려한 꽃과 반짝이는 싱싱한 나뭇잎을 봅니다. 반가워서 가까이 가서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조화라는 것을 알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면 가짜가 진짜보다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나무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저 편하고 오래가고 잘 보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파급효과도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통해 다른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해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요즘 종교를 사칭한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목적이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결국 목적은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여성신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한때 트로트계에서 히트를 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요즘 시대를 잘 풍자하는 가사에 가수의 무표정하고 우스운 춤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가짜가 너무 많은 세상에 신앙인인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명확하십니다. 복음선포는 교회의 사명이고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 신앙의 활동들이 좋은 성과만을 바라고 겉으로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다른 목적으로 둔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은총이 진짜 은총이 될 수 있을까요?

보잘것없는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복음선포는 교회의 사명이고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보잘것없는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명동성당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서울의 중심이다

광장에 쏟아지는 빛의 꼭지점은 십자가
천상의 소리로 빛나는 종소리
조선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생각의 중심은 지구본을 돌린다

세상을 바라보라
원심력으로 빌딩 숲 휘몰아치며
높이 오르려는 욕망 누르고

지하 성당 순교 성인 유해 앞에서
두 손을 모은다

삶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아는가 모르는가

명동은 서울의 별이다

중심에 선다는 것은
빛의 꼭지점에 서서
당신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은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이자 심장이다. 이곳은 원래 역관 김범우의 집이 있던 자리로 이승훈, 정약전의 삼 형제, 권일신 형제 등이 모여 조선 천주교회를 탄생시킨 곳이자 한국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이며 여러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이기도 하다. 1892년 5월 8일에 기공식을 갖고 1898년 5월 29일 성신강림 대축일에 조선 교구장 뉘텔 주교의 집전으로 역사적인 축성식을 하였다. 우리나라 근대 시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고딕 양식의 벽돌 건물로 평면은 라틴십자형 삼랑식이다. 설계와 감독은 프랑스인 신부 코스트가 담당했다고 전해지며 문화적인 가치가 높아 사적 제 258호로 지정되어 있다. 1945년 이름을 종현성당에서 명동대성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지하 성당에는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성인과 네 분의 순교자 유해가 모셔져 있다.

지하성당에 모셔진 성인 유해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30

통영지역 교우촌 (3)

최양업 신부는 전교 여행 도중 문경 새재鳥嶺 인근에서 1861년 6월 15일 선종한다. 과로와 식중독 그리고 장티푸스가 원인이었다. 당시 41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최 신부는 공적으로 경상도를 담당했던 첫 사목자였다. 후임은 다블뤼(Daveluy 安敦伊) 신부. 1861년 여름부터 맡았다. 그러다 3년 뒤 리델 신부가 경상도 사목을 전담한다.

리델(Ridel 李福明) 신부는 1865년 판공성사를 주기 위해 서부경남을 찾았다. 마산교구 지역을 방문한 첫 사목자였다. 순교복자 구한선(타대오)은 복사로서 안내를 맡았다. 리델 신부는 거제도까지 방문한 뒤 충청도로 떠났고 구한선(타대오)은 본가가 있는 소촌(문산)에 남았다. 그런데 이듬해(1866년 2월) 병인박해가 일어난다. 구한선(타대오)은 순교하고 리델 신부는 중국으로 피신했다. 이후 경상도엔 선교사 방문이 끊어졌다.

11년 뒤(1877년) 리델 신부는 6대 조선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어 다시 입국한다.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5대 교구장 다블뤼安敦伊 주교 뒤를 이은 것이다. 하지만 리델 주교 입국은 곧바로 알려져 체포되었고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잠시 입국했던 리델 주교는 그 와중에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를 경상도 전담으로 임명했다. 그렇지만 여러 사정으로 로베르 신부는 1882년에야 서부경남을 찾아갈 수 있었다. 리델 신부 이후 16년만의 방문이었다.

병인박해 후 경남지역 교우촌은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특히 해안지대와 거제도 교우촌은 완전히 해체된다. 박해가 워낙 심해 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모두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지역에 남으려면 교우 생활은 포기해야 했다.

통영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우들은 고성, 문산 쪽으로 피신하거나 인근 섬으로 몸을 숨겼다. 당시 통영은 군사도시로 인구가 많았다. 일거리도 풍부했고 지방민의 텃새도 덜했다. 그만큼 피난 교우들의 정착이 용이했던 지역이다. 이런 곳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해안지대 교우촌에 박해의 광풍이 불어닥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병인박해 때는 이 지역에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2년 뒤 무진박해 때는 달라진다. 바닷가 마을을 샅샅이 뒤져 교우들의 그림자까지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통영과 거제 교우촌은 무너진 것이다. 훗날 거제 교우촌은 순교복자 윤봉문 일가와 숨어있던 교우들에 의해 복구되지만 통영 교우촌은 회복되지 못했다.

무진박해 배경에는 오페르트 사건과 박근기朴根基 사건이 있다. 오페르트 사건은 대원군의 부친 묘를 도굴해 통상에 이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배후에는 프랑스 선교사와 충청도 교우들이 있었다. 분노한 대원군은 해안지대 교우 색출을 엄명했던 것이다. 체포령은 무진년(戊辰年 1868년) 5월에 있었기에 무진박해라 한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6월에 박근기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부산 초량에는 일본인 거류지가 있었고 초량왜관草梁倭館이라 불렀다. 놀랍게도 그곳엔 일본인 신자들이 있었다. 동래에 살던 교우 몇몇이 이곳 일본인 신자들과 비밀접촉을 가지다 발각된 것이 박근기 사건이다.

교우 박근기가 잡혔을 때 그에게서 비밀문서가 나왔다. 조선에도 종교 자유가 있도록 일본을 통해 서양에 호소하자는 내용이였다. 당시 조정은 오페르트 사건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을 통해 서양 세력을 끌어들이자는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박근기는 사형 당했고 해안지대엔 신자 체포령이 강화되었다. 통영 교우촌엔 치명타였다. 당시 통영엔 조선수군사령부 우수영이 있었기에 신자 색출은 군명軍命이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우들은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 고성 내륙이나 먼바다 섬으로 몸을 숨겼던 것이다.

허상과 진실

이규준 바오로 시인/ 가톨릭문인회

문득, 뒤돌아보니 무심하게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야속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세월의 강은 흘러왔고,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각본 없는 삶의 무대에서 뜬구름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던가. 어쩌면 이승에선 진정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알박한 승리를 얻기 위해 당긴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왔다. 이제는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 한참을 더 달려 저녁노을처럼 장년에 접어든 지금, 그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지난날을 되새김질해 본다.

나의 의지, 선택과는 무관하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만, 삶은 너무나 소중한다고 어릴 적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삶. 그래서 내던져진 망망대해, 돛단배에 몸을 의지한 채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부단히 노를 저어왔다. 그동안 삶의 여정이 진정 아름답다고 행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고통의 연속이었던가.

나 자신이 청년기에 영세를 받고 주님을 외면한 냉담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 삶의 최우선 가치를 세속의 성공에 두었음은 당연하다. 승진, 금전, 명예를 얻기 위해 몸부림쳤으며 때로는 부당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나침반이 없는 항해였다. 중국적으로 가야 할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순간순간의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만 급급했다. 그동안,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그러나 다행히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은 길 잃어 방황하는 한 마리 양조차 외면하지 않으셨다. 또다시 신앙의 빛줄을 내려 주시어 주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항해에 있어 나침반이다. 나침반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어도 정하여진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생명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만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오만한 인간은 때때로 자신이 하느님이 되고 싶어 하며, 따라서 자신이 나침반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여기에서부터 궤도를 이탈하게 되며 모든 불행의 시발점이 된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다시금 가슴에 와 닿는다.

이제는 꿈의 씨앗을 뿌리기보다 맺혀 있는 열매를 여물게 하고, 채우기보다는 하나 둘 비워야 하는 나이,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뜨린 앙상한 겨울나무를 가슴으로 쳐다본다. 한때는 신록으로 우거져 온갖 새들이 드나들었으며, 한여름에는 오가는 이들의 더위를 식혀 줄 그늘을 드리웠겠지. 세상만사,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이승의 끝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소중한 시간들.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오로지 생명의 말씀만을 나침반 삼아 걸어가야겠다. 탈선은 더 이상 그만. 그래서 삶을 마감하고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이승에서의 삶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지역할 선종 사제
박두환(베네딕토) 신부
1995년 2월 6일



지역할 선종 사제
김민수(유스티노) 신부
2013년 2월 7일

교구장 서리 동정

해성고등학교 졸업식
일시: 2월 7일(수) 10:30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2월 6일(화)
본당: 월남동/ 완월동/ 상남동
일시: 2월 7일(수)
본당: 대산/ 영산/ 의령/ 칠원/ 평거동
일시: 2월 8일(목)
본당: 석전동/ 호계/ 회원동

교구/본당

청년 성서 '에파타'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 공부와 나눔에 관심 있는 청년
신청: <https://forms.gle/syBoKbvEen9dC5AJ7>
및 QR코드로 신청
유의사항: 첫 그룹 공부를 신청하시는 경우, 주제를 창세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탈출기, 마르코, 요한 신청자는 직전 주제의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제별 개설반의 모임 시간은 신청자들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기관/단체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예수회센터 봄학기 동영상 강좌(3월 개강)

내용: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최지원 수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송봉모 신부
·그리스도인의 내적 돌봄-홍기령 교수
·그리스도의 불편한 진실 7가지-김관희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율기 강독-주원준 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및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원서접수: 23년 11월 13일(월)~2월 16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2024년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접수: 2월 28일(수)
대상: 초등부·3학년~6학년/ 중고등부·중학년~고3학년
문의: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고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 중)
일시: 3월 1일~4일(추자도 포함)/ 3월 8일~10일/

3월 13일~16일(추)/ 3월 18일~20일/ 3월 23일~26일(추)/
4월 11일~13일/ 4월 16일~18일/ 4월 20일~22일/
4월 24일~26일/ 4월 28일~5월 1일(추)/ 5월 2일~4일
문의 및 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일시: 자연·3월 10일~12일/ 5월 14일~16일/ 5월 27일~29일/
6월 10일~12일
성지·3월 21일~24일/ 4월 13일~16일/ 4월 25일~28일/ 5월 2일~5일
문의 및 접수: 064·756·6009, 02·773·1463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심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진동 요셉의 집 관리 직원 채용

업무: 정원, 농장 관리
문의: 진동요셉의집 010·8954·5242
(문의 가능 시간 09:00~16:00)
▶자세한 내용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비장애 통합 합창단 '파첸 합창단' 단원 모집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모니를 통해 지역사회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파첸 합창단'에서는 함께 평화를 노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매주 목요일 10:00~12:00
장소: 진해장애인복지관 2층 대강의실
모집: 수시(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분야: 합창, 피아노 반주(반주자는 자원봉사 실적 등록 가능)
신청 및 문의: 055·540·0440(진해장애인복지관 생애맞춤지원팀)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2월 5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과 마리아	최영철 알폰소 신부	박혁호 마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 날(미리 연락)	부산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p> 	<p>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p> <p>■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성지 순례 매주 출발 한국성지167 대구대교구 3월-3월 22일(금)~24일(일) ■해외 성지순례 모집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월-6월 10일(월)~21일(금)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p>  <p>지금 여기 사진관 김찬우(사도요한) 010-8949-7901 위치:창원 용지호수앞</p>	<p>대성의전 경남장모컨설팅</p> <p>산소 이장·무언고 처리 010-4848-9944</p> <p>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중윤(클레멘스)</p> <p>마산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p>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타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p>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여타 3박 4일 115만원</p> <p>마르코 투어 010-4239-1929</p>
-------------------------------------------------------------------------------------------------------------------------------------------------------------------------------------------------------------	---------------------------------------------------------------------------------------------------------------------------------------------------------------------------------------------------------------------------------------------------------------------------------------------------------------------------------------------	---------------------------------------------------------------------------------------------------------------------------------------------------------------------------------------------------------------------------------------------------------------------------------------------	----------------------------------------------------------------------------------------------------------------------------------------------------------------------------------------------------------------------------------------------------------------------------------------------------------------------------------------

초등부 신입 복사학교



초등부 신입 복사학교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1차, 2차로 나누어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었다. 1차는 마산·진주지구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는 창원·거제지구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복사학교는 미사전례, 제의와 제구 다루기, 인성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신입 복사들은 복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미사의 흐름과 제의의 종류, 제구의 종류를 배운 다음 제구를 다루는 실습을 하였다. 더불어 신입 복사들은 인성교육을 통해 봉사하는 마음과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

제239차 여성 꾸르실료 실시



교구 꾸르실료(담당: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 주관: 주성 알렉산델)는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제239차 여성 꾸르실료(차수 회장: 이지영 아네스)를 실시하였다. 이번 여성 꾸르실료는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32개 본당 54명의 자매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선배들의 빨랑카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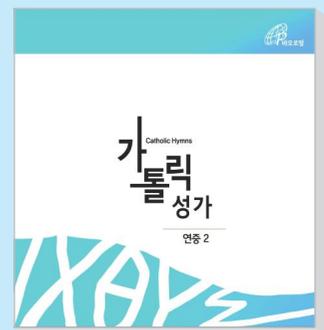
바오로딸, 디지털음반 발매 가톨릭성가 연중2

바오로딸은 디지털 앨범 <가톨릭성가 연중2>를 발매하였다.

발매를 시작한 가톨릭성가는 21장 앨범으로 되어있다. 그중 가장 많은 곡을 차지하는 연중 시기 성가 107곡을 디지털 컴필레이션 앨범 네 장으로 발매할 예정이며, 이 두 번째 앨범에는 성가 32번부터 57번이 담겨있다.

가톨릭합창단의 혼성 4부 합창과 명동성당 파이프 오르간 음색은 평소에 들어오던 연중 시기 성가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게 한다.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할 수 있으며,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유튜브 채널 '바오로딸뮤직앤'(www.youtube.com/@fspmusic)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제작: 바오로딸(www.pauline.or.kr)
- 지휘: 백남용 신부/ 노래: 가톨릭합창단
- 녹음: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 오르간: 박래숙 마르가리타
- 마스터링: 전훈(SONIC KOREA)



놀면 뭘 하나

황봉철 베드로 신부/ 성사전담

이 제목은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방영하는 놀이 프로그램의 한 제목이다. 이 글을 쓰라고 부탁 받은 후, 첫 번째 글인데, 제목을 꼭 붙여달라기에 어떤 제목을 붙일까 하고 겨우 생각해 낸 것이 이것이다.

은퇴 후, 아니 성사전담 신부가 된 지, 벌써 5년째 접어든다. 첫 번째 1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쉬었다. 그러면서 생각해 낸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고 시간이 빨리 가고 또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 건지를 생각해 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배운 도둑질”인 성서 공부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 번역이다. 이미 우리말로도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또 뭘 새삼스럽게 번역을 하느냐고 누가 짜증스러운 편찬의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말이란 세대를 거치면서 그 뜻이 변하기에 그렇고, 또 완벽한 번역이 있을 수 없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자꾸 새롭게 더 나은 번역을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옛날 어느 선배 신부님의 말이 생각난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 말은 번역이 얼마나 그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할까 하는 의구심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살았던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Cansianum 신학교 기숙사에는 교구 신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와는 달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신부, 신학생들이 많이 살았는데, 많을 때는 23개국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각국 나라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의 성탄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40여 년 전 그때 우리는 우리 고유의 성탄 노래가 없었고, 그들이 우리말을 모르기에, “고향의 봄” “오빠 생각”등을 불렀다. 그런데 한국 신부, 신학생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란 일이 일어났다. 인도 신부, 신학생들이 그들의 성탄 노래를 부를 때였는데, 우리 귀에는 흡사 “염불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중국말로 불경을 번역할 때, 그 산스크리트 경전의 운율도 그대로 살려서 따온 것이 아닐까?

광주 대신학교 재학시절 도서관에서 읽었던 글이 생각났다. 불경을 “산스크리트” 인도말에서 중국말로 번역했을 때 일곱 단계를 거쳤다고 한다. 1) 초벌 번역: “번역은 반역이다”란 말을 늘 염두에 둔다. 2) 문법: 어느 쪽의 문법을 따를 것인가? 예: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해야 할지, “나는 간다 학교에”라고 해야 할지. 3) 어순: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계문일 경우 우리 말은 관계문이 먼저 나오지만, 희랍말(그리스)이나 외국말은 관계문이 뒤에 나온다. 4) 가능하면 같은 단어 사용. 예: “아가페”를 “사랑”이라고 번역했으면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랑”이라고 번역한다. 5) 가능하면 단어의 길이가 같게. 6) 운율: 산스크리트로 읽을 때와 중국말로 읽을 때 얼마나 비슷한가? 7) 되번역: 중국말 번역을 산스크리트어로 되번역했을 때, 얼마나 원문과 같을까?

이번에 새롭게 번역을 시도하는 것은 이 일곱 단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3), 4) 그리고 7)이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든다. 옛말에 “노니 장독 깨다”는 말이 있다. 가만있으면 편한 것을, 요란스럽게 일을 내어, 귀한 장독이나 깨뜨리거나 앓나 하는 염려에서 하는 말이다.

‘가톨릭마산(교구보)’ 2월 4일 자부터 매월 첫째 주에 황봉철 신부의 ‘성경 다시 보기’가 게재됩니다.